

일본 근세 배경 작품 속 여성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오오쿠(大奥) 작품 속 여성인들의 SDGs 공헌과
발전방향 과제*

김정호**

| 목차 |

1. 역사 작품 속 여성 주인공의
가능성
2. 남성에 의해서 형성된 고전 속
여성상(女性像)
3. 여성 서사의 해체, 그리고
다시쓰기
4. 맺음을 대신하며: 오오쿠의 SDGs
공헌과 발전과제

| 초록 |

본 연구는 일본 근세 시기 에도 막부의 금남 구역인 오오쿠(大奥)를 배경으로 한 문학·드라마 작품들이, 어떻게 여성 서사를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현대적 성평등 가치(SDGs Goal 5)를 담아내고 있는지를 고찰한다. 1950년대 후나바시 세이이치의 『에지마 이쿠시마』를 시작으로, 2000년대 아사노 다에코의 『오오쿠』, 그리고 2024년판 대하 드라마 〈오오쿠〉에 이르기까지, 작품들은 단계적으로 남성 중심적 질서와 여성 억압 구조를 해체해 왔다. 특히 2024년판 〈오오쿠〉에서는 여성들이 단순한 희생자나 음모의 주체를 넘어, 오오쿠 내부와 막부 정치 전반에 실질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성평등과 여성 권한 강화라는 현대적 의제를 드라마의 핵심 주제로 삼는다. 이는 출산·육아에 대한 통제, 가족제도 내 성역할 규범, 여성 간 경쟁과 연대 등 다양한 문제를 사극 서사 속에 긴밀히 엮어, SDGs Goal 5의 주요 지향점(여성의 정치·경제·공적 영역 참여, 성·재생산 권리, 성평등 의식 고양 등)을 창의적으로 구현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여성 서사의 재구성'은 과거 역사 사건을

* 이 논문은 2024학년도 경북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 지원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kimjungho@knu.ac.kr

재조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대 대중문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지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 오오쿠(大奥), 해체, 지속가능발전목표, 성평등, 사극, 역사 재구성,

1. 역사 작품 속 여성 주인공의 가능성

동아시아의 한국, 일본, 중국은 근대로 전환되기 전 유교 주자학 이념을 통치의 근간으로 삼아 왔다. 이는 단순히 국가 체제를 정당화하는 사상적 토대에 그치지 않고, 전통적으로 남성과 여성 간 위계를 제도화하여 가부장적 권력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논리로 작동해 왔다. 특히 일본 무가(武家) 사회에서는 이러한 질서가 1868년 메이지 유신(明治維新)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여성은 주로 「봉공(奉公)」과 「헌신(獻身)」의 이름으로 사적 영역에 종속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에도시대 에도성 내부에 존재한 오오쿠(大奥)는, 쇼군(征夷大將軍) 한 사람만을 위해 여성만이 거주하도록 제한한 금남구역으로서, 가부장제와 유교적 가치가 집약된 상징적 공간이었다. 기존 남성 중심 역사 기술에서 오오쿠는 주로 권력 투쟁의 무대나 이색적 궁중 공간으로 그려져 왔지만, 오늘날에는 해당 공간에서 억압받던 여성들의 주체성과 목소리를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재조명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2000년대 이후 일본에서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사극·문학 작품들이 급증하면서, 남성 중심 서사를 탈피하고 여성의 다면적 역할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흐름이 두드러진다. 이는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Goal 5¹⁾와 결부되어, 역사 재현을 넘어 현대적

1) SDGs Goal 5는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 강화(Achieve gender

성평등 담론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동아시아 가부장제와 여성 억압 구조를 재검토함과 동시에, 여성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수복(修復)·확장되어 가는지 고찰하는 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일본 근세를 배경으로 한 오오쿠 작품들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가부장적 질서 아래 억압된 여성 인물들이 어떻게 독자적 주체성과 자율적 목소리를 회복해 왔는지를 밝히고, 이와 같은 서사적 변화가 현대 SDGs Goal 5와 어떠한 접점을 이루며 향후 사극 작품이 여성 권한 강화와 성평등 실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이를 위해 텍스트 분석 및 비교 역사적 접근을 통해 1950년대 후나바시 세이이치(舟橋聖一)의 『에지마 이쿠시마(繪島生島)』, 2000년대 아사노 다에코(淺野妙子)의 『오오쿠(大奥)』, 그리고 2024년 대하 사극 드라마 〈오오쿠(大奥)〉 등 대표 작품을 선정하여, 시대별 여성 인물들의 서사 구조와 갈등, 그리고 변화 양상을 면밀히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핵심적인 분석 지점은, 유교적 가치관이 「봉공」과 「헌신」이라는 미덕으로 여성의 역할을 어떻게 정당화해 왔는지를 포착한 뒤, 여성주의적 재해석을 통해 여성의 ‘목소리’를 새롭게 부각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다.

오오쿠라는 공간은 에도 막부가 수립된 이후부터 막부와 함께 존속해 왔으며, 가부장적 질서가 집약된 특수한 장소로 간주된다. 실제로, 에도 성이 4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쓰나(德川家綱)의 치세에 이르러 대부분 완공되었음에도(中江克己, 2010: 112), 오오쿠 내부 사정은 오랜 기간 일반인들에게 소문 형태로만 전해졌다. 이는 오오쿠에 봉공하던 여성인 오쿠

equality and empower all women and girls)” 목표로 삼는다. 이는 2015년 유엔(UN) 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중 5번째 항목으로서, 2030년까지 다음과 같은 하위 목표를 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유엔 공식 문서 참조) 이를 통해 법·제도·관습·문화적 장벽을 극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모든 사회 영역에서의 성평등 실현을 지향한다. UN은 주기적으로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각국 정부·시민사회·민간 부문의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조추(奥女中)에게 외부 정보 유출을 엄격히 금지한 오오쿠법도(大奥法度)와 오세이시 마에가키(御誓詞前書)라는 비밀 서약서가 큰 역할을 했으며(菊池駿助, 1931: 87)²⁾, 이러한 금남 구역 특유의 비밀스러운 성격은 당시의 사건과 소문을 기록한 사료인 『후지오카야 일기(藤岡屋日記)』³⁾에서도 분명하게 찾아보기 어렵다.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세기에 금단의 공간이었던 오오쿠를 소재로 한 문학 작품들이 발표되기 시작했으나, 본격적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은 것은 메이지 유신(1868년) 이후, 실제로 1714년에 일어났던 에지마(繪島)와 이쿠시마 신고로(生島新五郎)의 밀회사건을 재구성한 가부키(歌舞伎), 그리고 이후 근현대 문학·드라마의 등장 덕분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가쓰노 신(勝能進)의 가부키 『에도 무라사키 도쿠가와 겐지(江戸紫徳川

2) 오오쿠(大奥)에 봉공하는 여성(오쿠조추, 奥女中)들에게 적용된 7항목의 봉공 서약서와 10개 조항의 '오오쿠 법도(大奥法度·女中條目)'는, 에도 시대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여성의 행동과 언행을 엄격히 규제하고 통제하는 내부 규칙이었다. 주요 내용은 "공적인 봉사를 최우선으로 삼을 것", "악의나 음모를 품지 말 것", "오오쿠의 일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 것", "동료 간에 불필요한 중상이나 암투를 하지 말 것", "사사로운 교제와 오만한 태도를 경계할 것", "음탕한 행위를 삼가고, 외출 시에도 유흥 목적의 장소를 방문하지 말 것", "각자의 행실을 바르게 유지하며, 각 방의 화재 예방에 유의할 것"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서약과 법도는 오오쿠 내부를 철저히 봉쇄된 공간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오쿠조추들의 생활과 행동을 유교적 '봉공(奉公)' 및 '헌신(獻身)'의 미덕 아래 복종시키는 장치로 작용하였다. — 御奉公の儀、實義を第一に仕え、少しもうしろぐらき義致間敷候、よろづ御法度のおもむき堅相守り申べき事。— 御爲に對し奉り惡心を以申合わせいたすまじき事。— 奥方の儀、何事によらず、外様へ申すまじき事。— 女中方之外、おもて向願がましき義、一切取持ち致まじき事。附、御威光をかり、私のおごりいたすまじき事。— 諸傍輩のかげことを申、或は人の中をさき候やうなる義仕るまじき事。— 好色がましき儀は不レ及レ申、宿下りの時分も物見遊所へまいるまじき事。— 面々心の及び候程は、行跡を嗜み申すべき事。附、部屋々々火之元念入申べき事。

3) 「藤岡屋日記 第三卷 (藤岡屋 由藏·嘉永二年(1849)記)는 에도의 사건과 사고를 기록한 사료로, 오오쿠와 관련된 내용은 당시 오쿠조추로 봉공했던 아네가코지(姉小路)를 암시하는 단편적인 기록만 남아 있다. 「竹齋娘ト有之ハ綾小路ト申老女也當時之大キケ物ニテ役人之進退等多分ハ此人之指揮ニアリ。」

源氏』(1881), 하세가와 시구레(長谷川時雨)의 『에지마 이쿠시마(江島生島)』(1916) 등은 오오쿠를 대중 서사로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김정호, 2024a), 1953년부터 후나바시 세이이치가 도쿄신문(東京新聞)에 연재한 소설 『에지마 이쿠시마』는 근대 문예 분야에서 오오쿠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더욱 주목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과거 오오쿠에 관한 연구들은, 예컨대 『지요다성 오오쿠(千代田城大奥)』(永島今四郎, 太田贊雄, 1892)나 『고텐조추(御殿女中)』(三田村鳶魚, 1964) 등에서 주로 그 내부의 정치적 구조와 여성 역할을 토대로 토대 연구를 전개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는, 오오쿠가 단순한 권력 투쟁 무대가 아니라 여성 시각에서 재해석될 수 있는 공간임을 다루는 연구가 증가하고(竹内誠·深井雅海·松尾美恵子, 2015; 福田千鶴, 2020), 오오쿠를 배경으로 한 만화는 남녀역전이라는 가상 세계를 설정해 여성 쇼군을 등장시킴으로써 젠더 질서 자체를 흔들었고⁴⁾, NHK 사극 〈아쓰히메(篤姫)〉에서는 여주인공인 쇼군의 정실(御台事)인 덴쇼인(天璋院)이 쇼군과의 합방(合房)을 거절할 만큼 자율적인 여성으로 그려지는 등, 전통적 가부장 틀을 넘어서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⁵⁾ 결국, 오오쿠를 제재로 한 작품이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는 역사적 비극성, 새로운 젠더 해석, 근대 이후의 반복적 문예화 등이 결합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론적 프레임워크(Framework)로는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의 해체(deconstruction) 이론⁶⁾을 적용하여 남성 중심 권력 구조와 ‘의무’, ‘정

4) 요시나가 후미(よしながふみ)의 만화 오오쿠(大奥)는 하쿠센샤(白泉社)의 2004년 8월 『MELODY』에 게재되어 2021년 2월까지 발표된다.

5) 2008년 1월 6일부터 12월 14일에 걸쳐서 방송된 쇼군의 정실부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47부작 NHK 대하 드라마이다.

6) 해체 이론(解体理論)은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가 제창한 철학적 방법론으로, 텍스트나 사상이 내포하는 모순과 불안정성을 드러내어 고정된 의미를 해체하고자 하는 비판적 사고방식을 제시한다. 이는 1967년 출간된 데리다의 저서 『그라마톨로지(De la grammatologie)』에서 처음으로 명확히 제시되었다. 해체 이론은

념' 등 고정된 규범이 어떻게 해체되는지를 분석하고, 서발턴(Subaltern) 이론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여 주변부로 취급되던 여성 인물들이 억압을 딛고 역사적 주체나 문화적 실체로 부상하는 과정을 규명하며, 동시에 페미니즘적 시각(특히 '목소리'를 잃은 여성들의 서사 복원)에 주안점을 두어 텍스트 속 여성 인물들의 발화와 실천이 어떻게 새로운 '맥락'을 형성해 나가는지를 면밀히 고찰한다.

이처럼 에도 막부 성립(1603년) 이래 오랜 기간 금남 구역으로 남았던 오오쿠는, 여성 서사의 재조명과 함께 근현대 문학·연극·드라마 전반

구조주의에서 포스트구조주의로의 전환 국면에서 발전한 것으로, Ferdinand de Saussure와 Claude Lévi-Strauss의 언어학·인류학적 연구를 비판적으로 계승하는 동시에, Martin Heidegger의 존재론적 사유와 Friedrich Nietzsche의 '진리'에 대한 해체적 관점을 철학적 토대로 삼는다. 해체 이론의 주요 개념은 다음과 같다. 차연(différance): 의미가 다른 기호들과의 차이에 의해 구성되며, 동시에 항상 지연·유보되는 과정을 지칭한다. 로그스 중심주의(logocentrism) 비판: 서구 철학이 '본질주의'나 '이분법적 사고(중심/주변, 긍정/부정 등)를 전제로 위계적 구조를 형성해온 점'을 비판한다. 텍스트 중심성: 모든 현상을 해석 가능한 텍스트로 간주하며, 단일하고 고정된 의미를 부정하고 다층적 해석 가능성을 강조한다. 해체 이론은 텍스트가 놓인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문학 비평에서는 고정된 해석을 거부하고 열린 독해를 지향한다. 예컨대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율리시스(Ulysses)』는 언어의 모호성과 다층적 의미를 탐구하는 문학작품으로, 해체 이론의 대표적 적용 사례로 꼽힌다. 또한, 해체 이론은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의 '저자의 죽음' 개념과도 연결되며, 텍스트의 의미가 독자와 문맥에 의해 구성된다는 입장을 지지한다.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의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ies)』 또한 국가(네이션)라는 개념을 텍스트와 상상력이 만들어낸 구성물로 파악하면서, 해체적 관점으로 그 형성 과정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이처럼 해체 이론은 철학·문학·사회과학 등 폭넓은 분야에 영향을 주어, 고정된 의미나 가치관을 재고찰하는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오오쿠(大奧)를 배경으로 한 사극·문학 작품을 '텍스트'로 간주하여,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남성 중심적 권력 구조와 여성 주체성 간의 위계와 이분법을 해체해 보는 데 이 이론을 적용한다. 특히, 오오쿠 작품 속 여성 캐릭터들이 어떻게 주변화(subaltern)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가 작품의 언어·서사·맥락 속에서 어떠한 다층적 의미로 재구성되는지를 해체적 독해를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근세 일본 사극 장르가 지닌 가부장적 질서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성평등' 구현 가능성을 대중문화와 문학 연구의 관점에서 확장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에서 점차 확대된 관심을 받아 왔다. 특히 여성 시각에서의 오오쿠 재해석을 시도한 연구들은, 이 공간이 단순한 권력 투쟁 무대나 궁중 이색담을 넘어 가부장 질서에 억압된 여성들의 ‘목소리’를 되찾고 재구성하는 장(場)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남녀역전이나 쇼군 정실의 합방 거절 등 파격적 설정은, 그간 ‘봉공’과 ‘헌신’의 미덕 아래 침묵을 강요받아 온 여성들이 어떻게 현대적 젠더 담론, 나아가 SDGs Goal 5라는 국제사회의 성평등 비전에 부응하는지를 증명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 성과와, 데리다의 해체 이론 및 서발턴 이론을 보조적으로 활용한 페미니즘적 관점을 결합하여, 오오쿠 작품 속 여성 인물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목소리’를 발현하고 주체성을 확립해 나가는지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1950년대 후나바시 세이이치의 『에지마 이쿠시마』, 2000년대 아사노 다에코의 『오오쿠』, 2024년 대하드라마 〈오오쿠〉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작품은 시대와 매체는 다르지만 모두 오오쿠를 배경으로 여성의 억압과 연대를 중심으로 서사화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에 따라 시대별 젠더 재현의 양상을 비교할 수 있는 시계열 구성을 채택하였으며, 반면 오오쿠를 단순한 궁중담이나 권력 음모로만 다룬 작품들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를 통해 근세 일본 사회의 여성 억압 구조가 어떻게 현대 사극 맥락에서 재해석되고, 궁극적으로 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2. 남성에 의해서 형성된 고전 속 여성상(女性像)

본격적으로 오오쿠 관련 작품(제3장)을 분석하기에 앞서, 일본 고전에서 여성이 어떠한 시각으로 그려져 왔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일본 고전은 헤이안(平安) 시대부터 에도 시대에 이르기까지, 주로 남성 위주의 권력·제도 속에서 여성이 어떤 방식으로 ‘주체성’을 표현하

나, 반대로 어떤 측면에서 억압당했는지를 은유적·우회적으로나마 담아 낸 역사를 지닌다. 다만, 이러한 고전 서사 대부분은 남성 작가 혹은 남성 중심 담론을 통해 기록되었기에, 여성 인물을 「질투」나 「불안정성」 등 부정적인 정념과 주로 연결 짓는 경향이 강했다는 점도 간과하기 어렵다. 이 장에서는 중세·근세 시기의 문헌을 시계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남성 작가들이 여성상을 어떻게 규정하고 재현해 왔는지, 그리고 그러한 관점이 어떠한 문화·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는지를 짚어 보고자 한다. 이는 이후 에도 시대 오오쿠 텍스트(제3장)에서 드러나는 여성 서사와도 밀접하게 연계된다.

2.1 여성의 전유물: 질투

「질투(嫉妬)」라는 감정은 본디 남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보편적 정념(情念)임에도, 동아시아—특히 근대 이전 일본—에서는 주로 「여성에게 귀속된 병리적 감정」으로 간주되어 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질투」의 한자를 보면 모두 ‘계집 녀(女)’ 부수가 붙어 있는데, 이는 남성 중심 사회가 질투를 ‘여성이 시기로 인해 생긴 병’으로 치부하며, 여성성 자체를 부정적으로 형상화하는 문화적 장치였음을 보여준다.⁷⁾

중세 시기의 설화집 『곤자쿠모노가타리슈(今昔物語集)』, 『훗신슈(發心集)』, 『고콘조몬쥬(古今著聞集)』 등은 이러한 통념을 극단적으로 드

7) 다만, 근대 이전 일본 문학 전반에서 남성에게 질투라는 정념이 전혀 묘사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다음 작품들에 나타난 남성 인물들의 욕망, 분노, 불안정한 감정 상태는 질투로도 해석될 여지를 충분히 지닌다. 헤이안 문학인 『源氏物語』에서는 상대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집착적 감정이 묘사되며, 모노가타리 후반부에는 강한 소유욕과 질투에 사로잡혀 살인을 저지르는 남성이 등장한다. 『伊勢物語』百二十段에는 질투에 휘말린 남성의 와카가 수록되어 있으며, 가마쿠라 시대 초기 설화집인 『宇治拾遺物語』(卷2-8)와 일기문학 『とはずがたり』에서도 後深草院의 질투 어린 정서가 와카에 담겨 있다. 또한 『新古今集』에 수록된 후지와라 데이카(藤原定家)의 와카 역시 남성의 내면적 갈등과 소유적 감정을 반영하는 텍스트로, 질투의 정념이 투영된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러낸다. 당시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은 가족의 경제·사회적 권한을 독점하였고, 여성은 그 질서에 종속되어야 했다. 이를 배경으로, 문학 작품들은 여성 질투를 ‘죄악’ 혹은 ‘병리’처럼 묘사했다. 예컨대 『훗신슈』 제5권 제3화에서는 어머니가 딸을 질투하여 손가락이 뱀으로 변한다는 이야기, 『고콘조몬슈』 제720단에서는 승려의 아내가 남편의 성기를 무는 질투 끝에 죽음에 이르는 사례가 제시된다(최승은, 2016). 남성 필자 혹은 남성 편찬자들이 전한 이러한 이야기들은 “여성에게 고유한 부정적 정념”이라는 이미지를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 다른 예로, 중세 군담문학인 『헤이케모노가타리(平家物語)』에는 시라보시(白拍子)인 기오(祇王)와 호토케 고젠(仏御前)이 등장한다. 시라보시란 노래와 춤을 곁들여 공연하던 여성 예능인을 가리키는데, 기존 연구 다수는 이를 근세적 의미의 매춘을 담당하던 유녀(遊女)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김정호(2024b)는 시라보시를 “자신의 예능을 즐기며 이를 통해 삶을 영위하는 여성”이라는 의미에서, 성(性) 거래 중심의 유녀가 아니라 ‘여성 예능인’으로 재조명하여 해석한다. 그럼에도 『헤이케모노가타리』에서 기오와 호토케 고젠을 형상화한 방식은 남성 작가 혹은 남성 주도 문예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않아, 이들을 주로 ‘질투와 욕망’의 대상으로 그리는 데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기오는 원래 다이라노 기요모리(平清盛)의 총애를 받았지만, 호토케 고젠이라는 어린 시라보시가 새롭게 등장하자 극단적인 질투와 자살 충동에 내몰리고, 종국에는 세속적 집착을 버리고 발심(發心)에 이른다. 이는 ‘남성 권력 앞에서 여성들이 상대적 지위를 놓고 다투는’ 장면을 부각하며, 결과적으로 여성 간 질투를 운명처럼 강조하는 서사를 형성한다. 종교적 구원이라는 또 다른 결말이 제시⁸⁾된다고 해도, 여성 질투가 비극과 결부되는 흐름 자체는 남성 필자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8) 일본 중세문학인 『도와즈가타리(とはずがたり)』, 『쓰레즈레구사(徒然草)』, 『기케이(義経記)』에 등장하는 시라보시 역시, 종교적 색채를 띤다.

근세 문예로 범위를 옮기면, 이른바 ‘여인들끼리의 질투’를 희극화하는 경향도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세스이쇼(醒睡笑)』 제6권 ‘질투(恪氣(リんき))’ 제3화에서는 저승으로 먼저 간 남편이 만난 노파와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미망인이, 질투심에 사로잡힌 모습을 골계적(滑稽的)이고 세련된 필치로 묘사한다(금영진, 2011).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남성 작가가 “노인의 질투”라는 소재를 이용해 희극과 풍자 요소를 극대화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전 중세 시기의 설화가 여성을 과멸적 질투의 희생자로 그렸다 한다면, 근세 문예에서는 노인 여성마저도 질투라는 ‘불편한 감정’을 희극적으로 소모하는 또 다른 방식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또한 “질투 = 여성적 · 병리적”이라는 구도를 깨뜨리지는 못하며, 오히려 풍자를 통해 여성 정념을 왜곡하거나 희화화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중세-근세 시기의 일본 문학을 관통하는 여성 ‘질투’ 서사는 대부분 남성 작가 혹은 남성 중심 담론에 의해 작성되었고, “여성 고유의 병리적 감정”이라는 편향된 인식을 거듭 재생산해 왔다. 가부장제 질서 아래에서 여성은 심리적 · 사회적으로 억눌린 상태에 놓여 있었고, 남성 작가들은 이를 ‘죄악’이나 ‘병리’ 같은 극단적/희극적 요소로 문학에 활용했다. 그 결과, 여성 질투는 시대와 장르가 변해도 거듭 재현되면서, 남성 독자에게 흥미로운 ‘이색 서사’ 또는 ‘교훈 담론’으로 기능한 셈이다.

이런 흐름은 에도 시대나 근세 문예에서도 여성 인물을 다룰 때 “질투”라는 요소가 계속 중요한 문학적 장치로 활용되었음을 시사한다. 중세-근세 시기에 이르기까지 형성된 ‘여성 질투’에 대한 통념은, 폐쇄적 오오쿠 공간이나 무가(武家) 여성들의 생활상에서도 자주 찾아볼 수 있다. 이는 곧 에도 막부의 오오쿠라는 제한적 공간 속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가능성을 예고하는데, 3장에서는 이러한 전통적 ‘질투’ 인식이 오오쿠 작품 속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재구성 · 해체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2.2 의무(義務) 이데올로기에 강요된 여성의 희생

에도 시대(17~19세기)에 걸쳐, 유교적 가치 체계는 여성에게 강한 윤리적·도덕적 구속력을 부과했다. 특히, 도쿠가와 막부는 주자학(朱子學)을 공식 이념으로 삼아, 충(忠)과 효(孝)를 가문의 존속과 국가 질서 유지의 핵심 윤리로 강조했다(김정호, 2003: 85-86). 이는 단순한 도덕적 미덕을 넘어, 여성에게 '희생'을 필연적 의무로 내면화하도록 만드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했다.

주자학적 윤리는 단순한 도덕적 규범을 넘어, 우주적 질서의 일부로 정당화되었다. 하야시 라잔(林羅山)의 『삼덕초(三德抄)』 가운데 「이기변(理氣弁)」에서는, 인의예지(仁義禮智)가 단순한 개인의 덕목이 아니라, 우주적 질서(理)에 따라 형성된 필연적 관계임을 강조한다. 그는 인간의 마음이 선악을 포함한 칠정(희·노·애·구·애·오·욕)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곧 윤리적 의무임을 주장한다.

인의(仁義)와 예지(禮智)는 모두 이(理)에서 비롯된다. 기(氣)에는 선(善)과 악(惡)이 있으므로 칠정(七情)이 생겨난다. 칠정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지만, 사단(四端)에는 선만 있을 뿐 악은 없다. 그 의(義)와 이(理)가 드러나는 지점을 '도의 마음'이라고 부른다. 예컨대 춥다면 옷을 생각하고, 굶주리면 먹을 것을 생각하며, 눈으로는 아름다운 색을 보고자 하고, 귀로는 흥미로운 소리를 듣고자 하며, 코로는 좋은 향기를 맡고자 한다. 이렇게 다양한 바람(욕망)이 일어나는 것은 모두 인간의 마음에 해당한다. '도의 마음'은 곧 이(理)이고, '인간의 마음'은 기(氣)이다.⁹⁾

9) 仁義禮智ハコノ理ヨリ出ルナリ。氣ニハ善惡アルユヘニ七情出來スル也。七情ニハ善ト惡トアリ。四端ニハ善バカリニツテ惡ナシ。其義理ニヨル處ヲバ道ノ心ト云フ。寒ケレバ衣ヲ思ヒ、飢テハ食ヲ思ヒ、目ニウツクシキ色ヲ見ント思ヒ、耳ニ面白キ聲ヲ聞ント思ヒ、鼻ニヨキ香ヲカガント思フ。ヨロツ願ヒホツスル處ハ、皆是人ノ心也。道ノ心ハ理也、人ノ心ハ氣也。『三德抄』의 「理氣弁」

이러한 철학적 논리는 단순한 개인의 윤리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질서 유지 원리로 기능했다. 특히, 여성의 희생을 “우주적 필연”으로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했다. 즉, 딸이나 아내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자연의 원리와도 같은 것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유교적 통치 논리는 계층을 막론하고 여성에게도 강력히 작동했다. 루스 베네딕트(Ruth Benedict)는 일본 문화를 분석하면서 “부모에게 진 빚은 결코 다 갚을 수 없다”라는 인식을 지적했는데(베네딕트, 2021: 164), 이러한 관념 속에서 딸은 곧잘 가족 생계를 위해 몸을 희생해야 할 의무를 부여받았다. 남성 필자들이 작성한 가정 교훈서나 문학 작품들도 이 희생을 미덕으로 포장했는데, 예컨대 도야마 준(遠山淳, 2009: 16)은 일본 문화를 ‘상대도 살리고 나도 산다’는 양립적 방식으로 설명하면서도, 실제로는 정작 여성에게만 일방적 헌신을 강요하는 역설적 구조를 안고 있었다고 필자는 분석한다.

17세기부터 18세기 후반까지, 막부는 여성의 역할과 행동을 규율하는 다양한 교훈서를 출간했다. 대표적으로, 『온나다이카쿠(女大學)』¹⁰⁾는 여성의 미덕을 “부모를 섬기고, 남편에게 순종하며, 자식을 바르게 기르는 것”으로 정의하며, 여성의 희생을 당연한 의무로 규정했다. 또한, 『온나초호키(女重宝記)』¹¹⁾ 같은 가정 교훈서가 등장하여, 여성의 희생이 단순한 도덕적 기대를 넘어 가부장적 사회 질서의 필수 요소로 기능하도록 조장했다.

10) 『온나다이카쿠』는 여성이 수신(修身)과 가정 운영(齊家)에서 갖추어야 할 덕목을 가나 문체로 서술한 교훈서로, 카이바라 에키켄(貝原益軒)의 『和俗童子訓』 제5권 「教女子法」을 바탕으로 출판업자가 개작·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교호(享保) 연간부터 근대까지 반복 출판되며 보급되었다.

11) 『온나초호키』는 소다 스키코(艸田寸木子)가 저술한 여성 교훈서로, 1692년 간행 이후 막말까지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여성의 교양, 결혼, 임신·출산, 예술, 실용 지식 등 실생활 전반을 다루며, 한자와 가나 혼용체에 후리가나와 삽화를 포함해 교육용으로 널리 활용되었다.

이러한 윤리적 구속력은 에도 시대 문학·극예술에도 지속적으로 투영되었다. 가령, 가부키나 조루리(淨瑠璃)¹²⁾, 그리고 지카마쓰 문자에몬(近松門左衛門)의 신주극(心中物)¹³⁾ 등 근세 문예 작품들은 인정(人情)과 의무·의리 간 갈등을 비극적으로 그려 대중의 공감을 얻었다.

대표적으로 지카마쓰 문자에몬의 『소네자키 신주(曾根崎心中)』에서 연인끼리 외부 압력으로 인해 동반 자살에 이르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한편으로 ‘진정한 사랑’을 미화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여성의 과도한 희생을 정당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처럼 유녀나 창녀가 된 여성은 가문 부담을 짊어졌다는 이유로 ‘효녀(孝女)’로 미화되기도 했고, 비극적 결말은 독자의 동정심을 불러일으켜 이들의 희생을 서사 장치로 소비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가나데혼 주신구라(仮名手本忠臣藏)』(1748년)처럼 아코(赤穂) 사건(1702년)을 소재로 한 작품에서, 남편(早野勘平)의 복수를 돕기 위해 스스로 유곽에 들어가는 여성(おかる)이 등장한다. 이들은 가문·공동체의 명예와 복수를 위해 개인적 정념을 억제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바치는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막부가 주자학적 질서를 통해 충(忠)과 의무를 강조하던 분위기 속에서 ‘극단적 헌신’을 보이는 여성 캐릭터들이 자주 형상화되었다. 이는 공동체를 위한 희생 행위를 숭고한 미덕으로 부각함과 동시에, 여성 또한 이러한 구조 속에서 자기 파멸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도되는 서사를 반복 재생산한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이런 희생 이데올로기는 경제적 압박과 결합하여 더욱 구조적으로 작동했다. 덴포 대기근(天保の飢饉, 1833~1837)과 1837년 오시오 헤이하치로(大塩平八郎)의 난¹⁴⁾이 발생한 시기에 가난한

12) 샤미센(三味線) 반주의 가타리모노(語り物) 음악의 총칭. 무로마치 시대에, 무반주(때로는 비파나 부채장단)로 낭창된 『조루리히메 이야기(淨瑠璃姫物語)』가 시초로, 샤미센 반주가 정착해, 인형극과, 후에는 가부키와도 결합해 서민적 오락으로서 크게 유행한다.

13) 남녀의 정사(情死)를 다룬 조루리(淨瑠璃) 및 가부키(歌舞伎)·교젠(狂言) 등.

농가에서 어린 딸을 유곽이나 사창가(岡場所)로 보내는 일이 빈번해졌는데, 부모는 “딸이 몸을 팔아 가문을 살리는 것은 ‘효행(孝行)’”(高木まどか, 2020: 14)이라는 논리를 내세웠고, 사회 전반도 이를 묵인했다고 볼 수 있다.

아시로 세이이치(矢代靜一)의 희곡 『미야기노(宮城野)』(1973)에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등장한다.

(중략) 열다섯이나 열여섯 살 된 어린 애들이 몸을 팔아 이 사창가로 넘어올 때 딸이야. … 얼마 전에 기근이 들어서인지, 조슈(上州) 주변에서 자주 오곤 해. 다들 햇볕에 그을리긴 했지만, 통통하고 귀엽고 기운 넘치는 애들이라니까.¹⁵⁾

이 장면은 남성 작가가 여성의 희생을 어떻게 자연스러운 ‘운명’으로 서술하는지를 보여준다. 소녀들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상품’으로 묘사되며, 이들이 처한 절망적 상황은 서사적으로 희화화된다.

자크 데리다의 해체 이론을 적용하면, 이러한 여성 희생 서사가 남성 중심 구도(부모/자식, 남성/여성)의 이분법을 얼마나 공고히 해 왔는지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서사에서는 여성 희생을 ‘가문의 명예’나 ‘숭고한 사랑’으로 포장하지만, 이를 해체하면 남성 중심 가부장제를 유지하기 위한 서사 장치였음을 드러낼 수 있다.

또한, 서발턴 이론(가야트리 스피박 외 2012: 42-140.)¹⁶⁾을 통해 보면,

14) 덴포(天保) 개혁은 국내 혼란과 외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1837년 오시오 헤이하치로의 난은 막부 통치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상징적 사건이다. 덴포 대기근(1833~1837)과 농민 계층 분화로 인해 치안 악화와 우치코와시(打ちこわし) 등 민중 봉기가 빈발하였다.

15) 矢代靜一. 1973. 『宮城野』 『寫樂考』. 日本劇作家協會.: 224.

16)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외. 2013.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서발턴 개념의 역사에 관한 성찰들』. 태혜숙(역). 서울: 그린비. : 42-140. 가야트리 스피박은 서발턴의 주체성을 무시하는 서양 지식인을 비판하고 서발턴 여성의 목소리가 억압되고 있는 현실을 부각시킨다. 그는 인도의 과부 순사(Sati) 사례를 통해 영국 식민주의가 과부를 구제받아야 할 타자로 규정하고 서발턴 여성의 주체성을 무시

이 시대 여성들은 “의무”라는 명분 아래 자발적 희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발화 기회를 박탈당하고 남성 작가나 남성 중심 권력에 의해 ‘희생자’로 표상되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가나데혼 주신구라』의 여성(おかる) 사례처럼 극단적 헌신이지만 동시에 주체적 선택으로 재해석될 여지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는 남성 중심 서사가 여성을 ‘도구화’하는 동시에, 특정 순간에는 ‘균열’을 일으키며 여성의 주체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한다.

결국, 에도 시대 여성 희생은 단순한 개인적 미덕이 아니라, 유교 주자학과 사회·경제적 구조가 결합된 이데올로기였다. 남성 지배층이 만든 문학·예능에서는 이러한 희생을 ‘효행’이나 ‘충성’으로 미화하고, 독자는 그것을 비극적·숭고한 감정으로 수용했다. 그러나 해체 이론과 서발턴 시각에서 보면, 이는 여성의 목소리를 잠식하고 남성 권력을 보존하기 위한 서사적 장치였다는 비판적 해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사상적 배경 속에서 형성된 여성 희생 서사가, 후속 장(제3장)에서 오오쿠 텍스트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고찰할 것이다. 오오쿠라는 금남 구역에서 벌어졌던 여성들 간 갈등과 희생, 그리고 그 속에 잠재된 주체성 회복 가능성을 파악함으로써, 현대 성평등(특히 SDGs Goal 5) 담론과의 접점을 찾아볼 계획이다.

해 왔음을 지적했다. 이는 동양 여성을 억압하면서도 이를 구제하려는 서양의 이중적 태도를 보여준다. 스피박은 서발턴이 가부장제, 식민주의, 민족주의 속에서 발언 기회를 빼앗긴 존재이며 그 목소리를 복원하려는 시도가 어려우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지식인들이 서발턴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그 주체성을 억압할 위험성이 있음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3. 여성 서사의 해체, 그리고 다시쓰기

3.1 『에지마 이쿠시마』: 여성 서사의 재현과 그 한계

후나바시 세이이치의 『에지마 이쿠시마』는 1714년의 에지마 이쿠시마 사건(江島生島事件)¹⁷⁾을 오쿠조추 에지마와 가부키 배우 이쿠시마 신고로의 밀회사건을 로맨스와 미스터리적 요소로 재구성한 작품이다(김정호a, 2024). 1954~1955년에 신초샤(新潮社)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으며, 이후 1955년에는 쇼치쿠(松竹)에서 영화화되었고, 1971년에는 TV 드라마로 방영될 만큼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 작품이 1950년대 중반 일본 사회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은 전후 일본의 사회·문화적 전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후 일본은 GHQ(연합군 최고사령부)의 개혁으로 인해 가족구조, 여성의 법적 권리, 공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한 시기였다. 예를 들어, 1945년 GHQ 개혁으로 여성 참정권 도입, 1956년 공창(公娼) 제도 폐지, 1958년 매춘방지법 시행, 1964년 도쿄 올림픽을 목표로 일본의 국제 이미지 재구축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고전적 여성상”을 강조하는 역사 서사와 시대극이 다시금 인기를 끄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전근대(近世) 사극(史劇)은 과거와 현대의 여성관을 대비하면서도, 가부장적 질서를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후나바시의 텍스트¹⁸⁾ 역시 전후 일본의 여성 재현 방식과 긴밀한 관련

17) 에지마 이쿠시마 사건(1714)은 오오쿠의 오토시요리(御年寄) 에지마가 쇼군 도쿠가와 이에쓰구(徳川家継)의 생모 겐코인(月光院)을 대신해 참배하던 중, 가부키 배우 이쿠시마 신고로와 밀회를 가진 일이 발단이 되었다. 막부는 이를 오오쿠 내 풍기 문란 문제로 확대하여 강경하게 처벌하였다. 상세한 내용은 김정호, 2024a. “『에지마 이쿠시마 사건』의 해체 - 역사 사건과 텍스트에서 본 질투와 욕망의 재구성 -”. 『日本語文學』1(103): 223-246. 참고.

18) 후나바시 세이이치는 「하얀 팔(白腕)」로 데뷔한 쇼와기의 대표 작가로, 1953 -

이 있으며, 고전적 여성상을 재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여성의 질투와 경쟁을 중심 서사로 삼아 여성 연대를 약화시키고, 여성의 희생을 미덕으로 강조하며, 남성 인물을 초월적 존재로 묘사하는 방식으로 가부장적 질서를 정당화했다.

텍스트에서 오오쿠는 여성 간 질투와 음모가 끊이지 않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아드님이시라면, 쇼군 후계자로서 장래에는 7대 쇼군의 생모가 되지 않는가.

이 얼마나 대단한 출세이신가.

(중략) “그렇지만, 하쓰네 도노 5월까지의 누구에게라도 이 사실을 입 밖에 내서는 안 될세”

“어째서 그렇게 말씀 하시는지요?”

“사쿄노 가타의 회임 사실이 오오쿠에 알려지게 되면, 먼저 미다이 도코로 사마, 두 번째로 오스메노 가타 어느 쪽이든 기분이 안 좋아 지시네”(중략)¹⁹⁾

이 장면에서 여성의 역할은 권력을 둘러싼 경쟁과 시기의 감정으로 축소된다. 쇼군의 부인들이 서로를 견제하며 질투하는 방식은 남성 중심 서사에서 여성 간 연대가 배제되는 전형적인 구조다. 엘레인 쇼월터(Elaine Showalter)의 페미니스트 크리티크(Feminist Critique) 이론에 따르면, 남성 작가들은 종종 여성들을 타고난 경쟁적 존재로 묘사하여 가부장적 질서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小平麻衣子, 2023: 104-105). 이러한 서사 구

1954년 『에지마 이쿠시마』를 도쿄신문(東京新聞)에 연재하였으며, 이후 신조사(新潮社)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큰 인기를 얻었다. 이 작품은 1955년 쇼치쿠(松竹)에서 영화화되었고, 1971년에는 TV 드라마로도 방영되며 대중적으로 널리 소비되었다.

19) 舟橋聖一. 1973. 『舟橋聖一集』. 筑摩書房. : 23. 「男の御子なら、世子様じゃ。行く末は、七代様の御母君。どえらい出世と云うものではある一」(中略) 「したが、初音殿。五ツ月の帯までは、先ず誰方にも口外はなさらぬがいい」「と仰有いますは?」「左京の方御妊りの儀、大奥へ知れ渡ると、第一が御台様、第二がお壽めの方、いずれも、甚だ御不興じゃ」(中略)본 논문에서 인용되는 후나바시 세이이치의 『에지마 이쿠시마』 텍스트 번역은 필자가 직접 한글 번역 수행하였으며, 다음부터 인용되는 텍스트의 원문은 따로 기입하지 않음. (이하 필자 번역)

조는 페미니즘 비평에서 가장 자주 지적되는 여성 서사 재현 방식 중 하나이다. 즉, 여성들은 질투하고 경쟁하는 존재로 그려지며, 남성(쇼군, 오오쿠 밖 관리 등)은 갈등을 초월한 중재자로 묘사된다.

더 나아가, 본 텍스트에서는 여성의 희생이 필연적인 미덕으로 강조된다. 에지마는 가부키 배우 이쿠시마와의 관계로 인해 유배되며, 이는 단순한 개인적 처벌이 아니라, 가문과 공동체의 명예를 위한 희생의 서사로 해석된다.

“(중략) 하자야(葉茶屋) 미즈자야(水茶屋) 같은 곳에서는 대낮부터 사내와 서로 안을 정도로 매우 혼한 일입니다. 그중에 능력 있는 사람(여성)은 사내 두 사람을 데리고 있어서 이번에는 이 사내와 다음에는 저 사내와라는 식으로 좋을 대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략) 에지마는 금육의 하루를 보내고 있었기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조차 괴로우면서도 가슴 속이 험뎠는 듯했다.²⁰⁾

“한다유(半太夫), 조금 졸리네요. 한 쪽 다리를 다 주무르셨으면 나가셔도 좋습니다”

(중략)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내인 자네에게 여성스럽지 않게 여인네의 자는 모습을 어찌 보여줄 수 있겠나”

“하하하. 역시 에지마 사마께서는 조심성이 깊으시군요. 그렇긴 하나 이미 밤은 깊었고 이 방에 있는 것은 저밖에 없으므로 좀 더 마음을 편하게 하고 손발을 편하게 두십시오”²¹⁾

여기서 여성의 성적 욕망은 억압되거나 부정적인 방식으로 묘사된다. 이는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여성의 욕망이 통제받는 방식과 연결된다. 케이트 밀렛(Kate Millett)의 『성 정치학』(1970)은 남성 작가들이 여성의 욕망을 부정적으로 그리면서도, 동시에 이를 서사의 중심적 동력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비판했다. 후나바시의 텍스트 역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여

20) 舟橋聖一. 1973. 앞의 책. 筑摩書房: 48.

21) 舟橋聖一. 1973. 앞의 책. 筑摩書房: 293-294.

성의 욕망을 “위험한 감정”으로 설정하면서도, 이를 작품의 주요한 서사적 장치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가야트리 스피박의 서발턴 이론을 적용하면, 텍스트 속 여성 인물들은 역사적 사건 속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체성을 획득하지 못하는 “침묵된 존재”로 남는다. 여성들은 사건의 중심에 있지만, 스스로의 선택으로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남성(쇼군, 가부키 배우, 막부 관리)의 결정 속에서 소모되는 존재로 그려진다.

여성 간의 질투와 희생은 가부장적 체제 내에서 정당화되며, 이를 넘어 서려는 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성 인물들의 결말은 대부분 비극적이며, 이는 전형적인 희생 서사의 구조를 따른다. 결국, 『에지마 이쿠시마』는 전후 일본 사회에서 소비된 대표적인 역사 로맨스 서사이지만, 여성을 독립적인 주체로 재현하는 데 실패한 한계를 가진다.

후나바시 세이이치의 『에지마 이쿠시마』는 1950년대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은 작품이지만, 그 안의 여성 서사는 여전히 가부장적 질서를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여성들은 질투와 경쟁을 통해 서사적 동력을 제공하는 객체로 설정된다. 남성은 여성 간 갈등을 초월하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로 묘사된다. 여성의 욕망과 희생은 남성 중심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도구로 작동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후속 절에서는 2000년대 이후의 오오쿠 작품들이 어떻게 고전적 여성 서사를 변형했는지 분석할 것이다. 특히, 최근의 작품들이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여성 주체성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오오쿠 서사 속 여성 재현의 변화 가능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3.2 여성의 시선으로 본 오오쿠: 현대적 해석과 역사적 전환

일본의 사극은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의 역사 해석을 기반으로 제작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일본의 여성 서사는 기존의 남성 중심적

역사 재현에서 벗어나, 여성 주체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아사노 다에코(淺野妙子)의 텍스트 『오오쿠』와 같은 작품은 남성 권력이 독점해온 정치적·사회적 공간에서 여성들의 관계망과 권력 구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역사적 재구성을 시도한다.

그러나, 본절에서 분석하는 텍스트에서 그려지는 여성들의 연대는 단순히 ‘여성이 단합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서사 구조에 머물지 않는다. 텍스트에서는 여성 간의 권력 위계와 내부 갈등, 신자유주의적 젠더 담론, 그리고 고전적 가부장제에 대한 대응과 변주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오오쿠』에서 여성들이 권력을 어떻게 형성하고 작동시키는지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이를 교차성 페미니즘(Intersectionality), 신자유주의 페미니즘(Neoliberal Feminism), 백래시(Backlash) 이론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일본에서 여성 해방 운동은 1910년대부터 본격화되었으며, 다이쇼(大正) 시대(1912~1926)의 민주주의적 흐름 속에서 여성들이 점차 사회적 주체로 등장했다. 마쓰다 히데코(松田秀子, 2010: 135)에 따르면, 1911년 창간된 잡지 『세이토(靑鞆)』는 히라쓰카 라이초(平塚らいてう)의 「원래 여성은 태양이었다(元始女性は太陽であった)」를 통해 여성 해방 사상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어 1916년, 시마나카 유우사쿠(嶋中雄作)가 『세이토』의 영향을 받아 『후진코론(婦人公論)』을 창간하면서, 여성들의 자립과 권력 확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松田秀子, 2010: 135-136).²²⁾

그러나 1930~40년대 군국주의 체제에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은 점차 축소되었으며, 이후 1950년대 보수적 젠더 규범이 강화되면서 ‘전통적인 여성상’이 다시 강조되었다. 특히 1950년대에는 ‘주부 논쟁’을 통해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다시 가정 중심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보수적 담론이 대두되었으며, 1980년대에도 ‘아그네스 논쟁’을 중심으로 여성의 가정 내 역할

22) 松田秀子. 2010), 앞의 책, 翰林書房, pp135~ 136.

과 사회적 진출 사이에서 충돌이 지속되었다(최용우, 2020).

이러한 흐름은 2000년대 이후 ‘조시료쿠(女子力)’와 같은 개념을 통해 변화하였다. 조시료쿠는 원래 여성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개선하는 능력을 의미했지만, 이후 기업 마케팅 전략과 결합하면서 소비 중심의 여성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개념으로 변질되었다. 한편, ‘조시카이(女子會)’는 여성들만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자리로 기능하지만, 여성이 서로 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부 경쟁을 부추기는 구조로 작동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오오쿠』는 이러한 현대 일본의 여성 담론을 반영하면서도, 근세 일본이라는 역사적 맥락을 기반으로 여성들의 권력 관계와 감정의 변화를 다층적으로 고찰한다. 즉, 텍스트는 단순히 과거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 여성 담론과의 접점을 형성하며 역사적 여성 서사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기능한다.

『오오쿠』에서 여성들만이 거주하는 오오쿠라는 공간은 단순한 여성들의 ‘내면적 생활 공간’이 아니라, 권력이 작동하는 정치적 공간으로서 기능한다. 특히 작품은 여성 간 권력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고, 경쟁과 연대를 동시에 형성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조명한다.

예를 들어, 1950년대 후나바시 세이이치의 『에지마 이쿠시마』와 2006년 아사노 다에코의 『오오쿠』를 비교하면, 여성 간 권력 구조에 대한 묘사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표1〉 장면비교

후나바시 세이이치의 작품 ²³⁾	아사노 다에코의 작품 ²⁴⁾
오오쿠는 아키후사, 오모테는 하쿠세키에게 맡긴다는 선대 쇼군 사마의 유언도 있었기에……	오모테에는 에치젠, 오쿠에는 자네(에지마)가 있어 주는 것이 제 마음의 버팀목입니다.

23) 舟橋聖一. 1973. 앞의 책. 筑摩書房. : 324.

24) 淺野妙子. 2006. 『大奥』. 角川文庫. : 19.

1950년대 후나바시의 작품에서는 오오쿠를 남성이 장악하는 공간으로 묘사하며, 여성들은 실질적인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심지어 최고 실권자인 텐에이인(天英院)조차 남성(아키후사)의 허락 없이는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존재로 그려진다.

반면, 아사노 다에코의 『오오쿠』에서는 “오오쿠 총책임자(大奥總取締)”라는 가상의 직책을 창작하여, 에지마가 켓코인(月光院)을 강력히 지원하는 구조를 설정한다. 켓코인은 에지마에게 남성(마나베)과의 밀회까지 털어놓으며, 여성 간 협력과 의지 관계가 강조된다. 이는 1950년대판과 달리, 여성이 남성에게 의존하는 구도를 해체하고, 여성들 간의 유대와 네트워크를 부각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아사노의 이러한 설정은 단순히 그녀만의 창작적 재구성에 머무르지 않는다. 일본의 역사학자인 미타무라 엔교(三田村鳶魚)와 나카에 가쓰미(中江克己)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 오오쿠는 로조(老女), 즉 여성인 오쿠조추들이 운영하고 관리한 공간이었다(三田村鳶魚, 2014[1964]; 中江克己, 2010).

이에 비해 1950년대 후나바시 세이이치의 텍스트에서는 오오쿠가 남성 관리자 아키후사에 의해 장악되었고, 최고 실권자인 텐에이인(天英院)조차 그의 허락 없이는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설정이 등장한다. 이는 역사적 사실과 다소 거리가 있는 해석이지만, 당시에는 그러한 설정에 비판적인 시각이 거의 제기되지 않았다. 특히 후나바시의 작품에서는 여성 간의 정서적 교류가 거의 배제되고, 여성들은 주로 질투와 경쟁 속에서 갈등하고 파멸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예컨대 다마쓰바키와 미야지는 에지마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지만, 결국 오오쿠에서 지위를 잃고 몰락한다. 이는 백래시 이론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여성 간의 경쟁을 부각함으로써 여성 집단의 권력 상승을 억제하고 남성 중심 사회 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전략과 연결된다.

아사노 다에코의 『오오쿠』는 이러한 기존의 여성 재현 방식에서 벗어나, 여성들이 단순히 권력 다툼의 주체로 소비되지 않고 동료애를 형성하

며 감정적·문화적 연대를 구축하는 서사를 제시한다. 특히 다과회, 시 낭창회 등의 문화 교류 장면은 여성이 주체적으로 문화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전통적인 남성 중심 사극과의 차별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여성의 역할 확대’에 그치지 않고, 교차성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여성 내부의 위계와 차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호 의지와 협력에 기반한 권력 행사의 다층성을 부각하는 지점에까지 나아간다. 다시 말해, 여성 간 경쟁은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관계 형성의 장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사노 다에코의 『오오쿠』에서는 질투가 보다 복합적인 감정으로 표현되며, 단순한 과멸이 아니라 자기 성찰과 내적 변화를 경험하는 계기로 작동한다. 특히, 덴에이인의 경우 처음에는 질투로 인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지만, 결국 에지마를 만나며 관용과 자기 성찰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같은 무렵, 니노 마루에 있는 덴에이인의 처소에는 평소처럼 커다란 함이 운반되어 들어왔다. (중략) 한 장의 편지가 있었다.

“목숨이 중하여 도망갑니다”

조주로(長十郎)의 글자체로 그렇게 적혀 있었다.

덴에이인은 낙담하여 그 편지를 몇 번이고 바라보고 있다. 미야지가 쓰기노 마에서 이 모습을 엿보며 문득 미소를 지었다.²⁵⁾

덴에이인의 말에는 무상함이 배어 있었다. (중략)

“혹시 다른 부탁은 없으신가. 신슈로 떠나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말해 보시게”

덴에이인의 제의에 에지마는 가만히 생각했다. 지나서 입을 열었다.

“그자의 처형에 입회하고 싶습니다”

덴에이인은 고요히 미소 짓는다. “알겠습니다”²⁶⁾

25) 淺野妙子. 2006. 앞의 책. 角川文庫. : 137.

26) 淺野妙子. 2006. 앞의 책. 角川文庫. : 139.

이 장면에서 덴에이인은 질투로 인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인물에서, 자기 성찰을 통해 감정을 초월하고 관용을 실천하는 인물로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니라, 여성들이 감정을 통해 성장하고 자기 성찰을 이루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구조는 신자유주의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흥미로운 대조를 이룬다. 신자유주의 페미니즘은 “개인의 노력과 자기 계발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담론을 강조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성 간의 연대를 약화시키는 문제를 내포한다.

후나바시의 작품에서는 여성 캐릭터들이 서로 경쟁하며 몰락하는 방식으로 신자유주의적 경쟁 구조가 강화된다. 반면, 아사노의 작품에서는 경쟁을 넘어, 여성들이 자기 성찰을 통해 성장하고 관용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해석이 확장된다. 또한, 아사노 다에코의 『오오쿠』에서 덴에이인의 질투 서사와는 달리, 겐코인은 자기 성찰과 연대를 통해 감정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초반부에서 겐코인은 마나베와의 애정 관계에 집착하며 욕망을 드러내지만, 결국 병에 걸리며 자신의 한계를 인식한다. 이후, 그녀는 에지마와의 연대를 통해 자아 성찰의 기회를 얻으며, 감정적 성장과 관계의 재정립을 이루는 서사를 보여준다.

“용서해 주시게” 겐코인의 볼에 눈물이 흘렀다.

“저는 에치젠을 위해 자네를 배신했습니다. 에치젠이 곁에 있어 주는 것과 자네의 목숨을 저울질하다 에치젠 사마를 잡았습니다. 이 죄는 평생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중략) “겐코인 사마께서는 죄가 없습니다”

에지마의 어조는 차분했다.

(중략) “겐코인 사마 당신이 잘 알고 계시는 여인의 행복을 저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행복을 가슴에 품고 신슈로 떠나는데 무슨 원한이 있었습니까?”

“…… 여인의 행복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단 하룻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알고 나니 앞으로는 여생이라 생각되는 사랑이었습니다”²⁷⁾

이 장면에서 겐코인은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권력 질서 속에서 자신이 감정적으로 억압받고 있었음을 자각하고, 결과적으로 감정의 극복과 연대를 통한 새로운 관계 형성 가능성을 모색한다.

아사노 다에코의 『오오쿠』에서 겐코인은 일본의 고전적 여성상을 대표하는 인물로 배치되며, 이에 대비되는 인물로 에지마가 등장한다. 이러한 구도는 단순한 세대 차이나 권력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고전적인 여성성과 현대적인 여성성의 차이를 고찰하는 서사적 장치로 기능한다.

겐코인은 처음에는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여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형적인 인물로 등장한다. 그녀는 쇼군의 생모로서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여전히 남성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한다. 특히, 마나베와의 관계에서 그녀는 감정적으로 남성에게 의존하는 고전적인 여성상을 보여주며, 이는 백래시 이론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백래시 이론에 따르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될 때 기존 가부장적 질서는 여성 내부의 경쟁과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반작용할 수 있다. 즉, 여성 간의 갈등을 조장하여 여성 해방을 저해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겐코인의 초반 서사는 이를 반영한다.

그녀는 마나베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마나베(남성)와 에지마(여성) 사이에서 갈등한다. 결국, 자신을 곁에서 시중 들던 에지마를 경쟁자로 인식하고, 마나베를 선택하여 에지마를 유배 보내게 된다.

이는 기존 백래시적 구도에서 여성들이 서로 경쟁하도록 유도되는 방식을 따른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자신이 따르던 권력 질서가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었음을 깨닫고, 이를 인정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 이 장면에서 겐코인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자신이 유지해 온 질서의

27) 淺野妙子, 2006. 앞의 책. 角川文庫. : 144-145.

문제점을 자각하고, 여성 간의 연대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는 전통적인 여성 서사에서 흔히 등장하는 여성 간 경쟁의 구도를 해체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아사노 다에코의 『오오쿠』는 단순한 사극이 아니라, 여성 간의 관계와 권력 구조를 탐색하는 현대적 젠더 서사로 기능한다. 깃코인은 전통적인 여성성이 어떻게 권력 질서와 맞물려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며, 이를 통해 백래시 구조를 해체하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반면, 에지마는 신자유주의적 여성상으로서, 남성 없이도 권력을 유지하지만, 경쟁과 위계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새로운 고민을 던진다. 즉, 두 인물의 대비를 통해 『오오쿠』는 여성들이 권력을 다루는 방식이 단순한 경쟁이나 순응이 아니라, 연대와 재구성의 과정임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오오쿠』는 고전적인 여성성과 현대적 여성성을 동시에 고찰하면서, 여성의 권력 구조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작품으로 해석될 수 있다.

3.3 역사 재구성의 가능성

일본의 현대 사회에서 가상의 세계를 통해 젠더 권력 구조를 재구성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무라타 사야카(村田沙耶香)의 『살인출산(殺人出産)』(2018), 요시나가 후미(よしながふみ)의 〈오오쿠(大奥)〉, 그리고 최근 Disney+의 〈쇼군(SHOGUN)〉(2024) 등이 있다.

『살인출산』은 기존 젠더 질서를 해체하며, 출산을 생물학적 성별과 무관한 행위로 설정한다. 출산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가능해지면서, 출산이 권력 유지의 도구가 되는 구조 자체가 사라진다. 요시나가 후미의 〈오오쿠〉는 가상의 전염병으로 인해 남성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여성들이 정치와 경제를 주도하는 사회 구조를 형성한다. 기존 남성 쇼군을 위

해 존재했던 오쿠조추는 사라지고, 대신 여성 쇼군을 위해 남성들이 존재하는 남녀역전의 세계를 보여준다. 그리고, 〈쇼군〉에서는 도다 마리코(戶田鞠子)라는 여성 캐릭터가 주요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며, 기존 역사 속에서 남성 중심으로만 서술되었던 권력 구조를 재구성한다. 또한, 기존 남성 무사 계층의 전유물이었던 할복(切腹) 의식을 여성도 수행하는 등, 젠더의 역할을 새롭게 해석한다.

이렇듯 각 작품들은 가상의 설정을 통해 기존 젠더 질서를 비판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고찰한다. 그러나 요시나가 후미의 〈오오쿠〉는 단순한 남녀 역할 교체를 넘어, 여성 권력이 기존 남성 권력의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는 한계를 지닌다는 점에서 『살인출산』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요시나가 후미의 〈오오쿠〉는 기존의 남성 권력 구조를 여성 중심으로 변형하지만, 여전히 출산이 권력 유지의 핵심 요소로 작동한다.

여성 쇼군을 중심으로 한 남성들은 자손을 낳는 것이 권력 유지의 핵심 수단이 된다. 이에 따라 출산에 성공한 남성과 그렇지 못한 남성 사이에 위계가 형성되며, 남성 간 경쟁이 심화된다. 즉, 기존 남성 중심 권력 구조가 단순히 여성 중심으로 전환되었을 뿐, 출산이 권력과 연결된 방식 자체는 변화하지 않았다.

『살인출산』에서는 출산이 더 이상 여성만의 역할이 아니다. 남성도 인공자궁을 통해 출산할 수 있게 되면서, 출산 자체가 특정 젠더에 귀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출산에 성공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는 기존 구조가 붕괴되며, 젠더 위계의 중심이 되었던 출산의 의미가 완전히 재구성된다.

〈오오쿠〉는 기존의 남성 중심 권력 구조를 단순히 여성 중심으로 치환하면서도, 여전히 출산이 권력의 중요한 수단으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반면 『살인출산』은 출산을 생물학적 성별에서 분리함으로써, 출산이 권력과 연결되는 방식을 해체하고, 기존 젠더 위계의 작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오오쿠〉는 젠더 역전을 다루면서도 여전히 기존

의 권력 구조를 답습하고 있으며, 『살인출산』은 보다 근본적으로 젠더 질서를 해체하는 대안적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2024년 Disney+에서 방영된 〈쇼군〉 또한 가상의 역사 재구성을 통해 여성의 역할을 새롭게 탐색하는 작품이다. 특히 이 작품에서 도다 마리코라는 인물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자들과 외국인 사이에서 통역과 협상 역할을 수행하며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²⁸⁾ 마리코는 17세기 일본에서 여성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역할을 담당하며, 단순한 남성 권력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과 전략을 통해 권력을 행사한다. 〈쇼군〉의 이러한 설정은 〈오오쿠〉의 여성 권력 구조와는 차이가 있다. 〈오오쿠〉는 여성들이 정치적 권력을 차지하는 설정을 하지만, 여전히 남성 중심의 전통적 위계질서와 정치적 압투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반면, 〈쇼군〉의 마리코는 남성 사회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틀 자체를 흔드는 존재로 묘사된다.

또한 〈쇼군〉에서 도다 마리코는 여성으로서 무사의 할복 문화를 받아들이며, 남성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하고자 한다.²⁹⁾ 이는 전통적으로 남성들에게만 허용된 할복 의식을 여성이 수행하는 장면으로, 단순한 젠더 역전이 아니라 남성 중심의 죽음의 형식마저 해체하는 방식으로 재구성되었다. 〈오오쿠〉의 여성 쇼군이 기존 남성 쇼군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과 달리, 〈쇼군〉의 마리코는 여성의 역할을 완전히 재정의하는 방식으로 젠더 질서를 해체하는 데 접근한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도다 마리코의 원 모델이 가스가노 쓰보네(春日局)라는 점이다. 〈쇼군〉은 도다 마리코라는 캐릭터를 통해, 에도 막부가 개막되기 이전 여성 권력의 가능성을 새롭게 재현하고 있다.

다바타 야스코(田端泰子, 2002)는 도쿠가와 히데타다(徳川秀忠)의 유모 출신이면서, 오오쿠 시스템 구축에 기여한 가스가노 쓰보네(春日局)

28) 〈SHOGUN〉(Justin Marks, 2024, Disney+, 10부), 제5화 「父の怒り」, 30분 경

29) 〈SHOGUN〉(Justin Marks, 2024, Disney+, 10부), 제9화 「奈落の底」, 48분 경

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가스카노 쓰보네는 단순한 유모가 아니라,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히데타다의 권력 기반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그녀는 조마쓰(長松, 히데타다의 어린 시절 이름)의 교육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도쿠가와 막부 체제 내에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은 〈쇼군〉 속 도다 마리코라는 캐릭터와 연결된다. 마리코는 영국인 미우라 안진(三浦按針, William Adams)과 일본 권력자 요시이 도라나가(吉井虎永,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모델로 한 인물) 사이에서 통역가이면서도, 정치적 협상을 조율하며, 기존의 작품에서 보여준 여성 역할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준다. 〈쇼군〉은 가스카노 쓰보네가 실제 역사에서 수행했던 정치적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극적 서사로 확장하며, 전통적 남성 권력 구조 속에서 여성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처럼 〈쇼군〉과 〈오오쿠〉는 역사적 맥락을 반영하여 여성 권력이 발현되는 과정을 보여주지만, 그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쇼군〉은 17세기 일본을 배경으로, 도다 마리코를 통해 여성의 정치적 영향력을 탐색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반면, 〈오오쿠〉는 여성 쇼군이라는 설정을 통해 남성 중심의 권력 구조를 역전시키지만, 기존의 위계질서와 정치적 경쟁 구도를 여전히 답습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젠더 해체보다는 '남성 역할을 여성에게 대입하는 방식'으로 권력 구조를 재현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쇼군〉이 전통적인 남성 권력 질서 속에서 여성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서사라면, 〈오오쿠〉는 기존의 남성 중심 권력을 단순히 여성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재구성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결국, 〈오오쿠〉에서 여성들은 권력의 주체로 등장하지만, 여전히 기존의 정치적 경쟁, 질투, 계급 구조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남성 중심 권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다. 이에 비해, 〈쇼군〉과 같은 작품은 기존의 권력 구조 내에서 여성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3.4 2024년 오오쿠 열기의 재점화: 대하 드라마 <오오쿠>

앞서 제3.1절~3.3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에도 시대 오오쿠는 전통적으로 ‘여성 간 암투’, ‘희생적 여성상’ 등으로 재현되어 왔다. 그러나 근현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고정관념을 해체·재구성하는 흐름이 나타났으며, 특히 후지TV와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2024년 1월 18일부터 3월 28일까지 방영한 2024년판 <오오쿠>는 전작들보다 한층 적극적으로 ‘여성의 정치적 역할’과 ‘현대적 젠더 가치’를 부각시킨다. 이는 앞서 언급한 페미니즘적 시각과 SDGs Goal 5라는 국제적 담론이, 사극 장르에서도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1) 현대적 성평등 해석과 에도 시대 배경의 결합

2024년판 <오오쿠>는 기본적으로 에도 후기(10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하루 -11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나리 시기 전후)를 배경으로 삼으면서, “여성들이 오오쿠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어떻게 권력을 쟁취하고, 또 협력해 나가는가”를 주요 축으로 삼는다. 이전의 작품(1950년대 『에지마 이쿠시마』, 2000년대 『오오쿠』 등)에서도 여성 권력을 어느 정도 조명했지만, 대부분 가부장 질서에 예속된 갈등(질투, 모략)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번 2024년판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현대적 젠더 해석을 강화했다.

① 정실(이소노미야 도모코(五十宮倫子))과 측실(오치보(お知保), 오시나(お品))의 역동성

초반에는 2024년 이전의 오오쿠 작품들에서 자주 보여지는 정실·측실 간의 전형적 대립 구도를 이룰 듯 보이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이들의 관계는 경쟁을 넘어 권력 구조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공동의 행위자’ 형태로 발전한다. 예컨대 4~5화에서 도모코는 오치보의 재능(거문고 연주, 난학

공부 등)을 인정하며, 경쟁보다는 ‘함께 책임지는 관계’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어 8~9화에서는 쇼군 후계자(世継ぎ)를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지만, 결국 도모코와 오치보가 서로의 상처를 공감하고 연대하는 순간이 드러난다. 이는 기존 오오쿠 작품에서 흔히 그려지던 ‘여성 간 암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더 나아가 연대·협력이라는 현대적 페미니즘 가치를 제시한다.

② 남성 쇼군과의 대등한 파트너십

도모코가 정실로서 그저 ‘내조’에 머무르지 않고, 막부 정치나 대내외 사정(난, 경제 개혁, 후계자 결정 등)에 직접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여성의 정치적 주체성을 강하게 드러낸다. 구체적으로 6~7화에서, 도모코가 남편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보여주는 대처나, 막부 개혁안을 놓고 갈등을 빚는 인물(田沼意次, 松島, 정무 담당 고관들)과 도모코가 직접 의견을 주고받는 장면은, 근세 일본 배경임에도 여성이 공적 권력에 참여할 수 있음을 극적으로 부각한다.

③ 남성 쇼군과의 대등한 파트너십

드라마의 후반부(9~11화)에 전개되는 막부 후계 분쟁, 그리고 그 속에서 수면 위로 드러난 암투(자녀 살해, 독살 미수 등)는 “여성의 출산·육아 권리, 가부장제 속 정치 개입”이라는 중요한 이슈를 제기한다.

작품은 이를 통해 ‘여성이 개인적·가족적·사회적 차원에서 어떻게 자율성을 확보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케 만든다. 이는 SDGs Goal 5 중 ‘정치·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5.5)’의 관점을 사극의 맥락에 맞게 스토리화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도모코, 오치보, 그리고 오시나가 각각 다른 이유로 아이를 가졌거나 잃게 되는 사건이 반복되면서, 여성에게 임신·출산이 어떤 의미

인지, 권력투쟁의 수단으로 아이가 이용되는 구조가 얼마나 부당한지를 보여주고, 최종적으로는 모성의 권리와 정치적 책임 모두를 존중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2) 여성 인물들의 ‘연대와 갈등’ 서사 구도

오오쿠라는 공간 자체가 외부 남성 정치와는 별개로 “여성만이 거주하는 권력의 장(場)”이라는 점에서, 2024년판 <오오쿠>는 여성들 간의 세밀한 권력투쟁, 계급·신분 차이, 모성과 질투, 그리고 그 속에서 싸트는 연대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그려낸다. 다음은 작품 후반부(8~11화)에서 나타나는 주요 갈등 양상이다.

① 후계자 경쟁 → 정치적 암투로 확장

오치보의 아들(竹千代), 오시나의 아들(貞次郎), 도모코의 유산 경험 등이 복잡하게 얽히며, 단순한 ‘나의 아이를 후계로 삼겠다’라는 경쟁이 아니라 막부 정국을 좌우하는 정치적 사건으로 발전한다.

이를 통해, 전통적 오오쿠 작품이 부각하던 ‘질투·음모’가 실제론 여성의 생존 전략이자 공적 결정(후계 문제)에 대한 실질적 개입임을 보여준다.

② 도모코·오치보·오시나의 관계 변화

초반 갈등이 극한에 치달은 후, 후반부로 갈수록 세 여성은 서로가 처한 위치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예컨대, 9화에서 오치보가 아들을 잃고 슬픔에 잠길 때 도모코가 곁에서 지지해주는 장면이나, 10화에서 오시나가 “자신의 아이가 막부 권력의 희생양이 되는 걸 바라지 않아, 죽었다고 위장한 뒤 에도성 밖에 몰래 숨겨 두었다”고 고백하는 순간 등은 단순 대립을 넘어서는 ‘여성 간 공감과 연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과거 오오쿠 작품(예: 후나바시 세이이치판)에서 여성 인물이 최

후까지 대립하다가 파멸로 치닫던 구도와 달리, 새로운 서사적 결말—즉 서로 다른 길과 방식을 인정하면서도 협력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결말—을 제시한다.

③ ‘내적 성장’과 ‘권력의 공동 관리’

작품 최종부에서 도모코가 오오쿠를 ‘여성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고, 동시에 국가 경영(막부 후계)에도 기여하는’ 공간으로 재정비하려는 의지를 보이면서, 오오쿠가 단순히 가부장제 부속 기구가 아니라 여성도 참여하는 정치의 장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는 단지 정실(도모코)만이 승리하는 ‘개인적’ 성공 서사가 아니라, 각자 다른 출신과 배경을 지닌 여성들이 공동의 비전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이 중요하다.

3) “역사 다시쓰기”를 통한 SDGs 가치 구현

본고의 앞선 절들(제2장, 제3.1~3.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통적으로 일본 고전 문예와 근세 사극은 여성에게 ‘질투’, ‘희생’, ‘봉공’을 강조하여 남성 중심 질서를 자연스럽게 재생산해왔다. 그러나 2024년판 〈오오쿠〉는 이러한 기존 서사의 틀을 해체하면서도, ‘역사적 사실+허구적 구성’을 교차시켜 동시대 관객이 공감할 수 있는 젠더적·정치적 함의를 부여한다.

① “근세 일본”을 통해 “현대 성평등” 논의를 이끈다.

오오쿠 내부의 여성 권력투쟁을 단순 자극 요소로 사용하기보다는, “에도 시대라는 틀 안에서도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고, 자기 욕망을 표출하며, 서로 연대할 수 있었다”는 해석을 전면에 내세운다.

이는 현대적 가치—SDGs Goal 5, 즉 성평등과 여성 권한 강화—가 과거 사극의 배경에도 충분히 접목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 역사·사극 장르가

‘단순 고증’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메시지를 제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② 출산·육아 ‘권리’와 ‘정치’의 점점 부각

작품 중후반(6~10화)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유산, 암투(독살, 모략), 아이를 이용한 권력 공고화 시도 등은, 여성 몸(출산·육아)이 가부장 권력에 철저히 종속되는 양상을 비판적으로 드러낸다.

동시에, 도모코와 측실들이 출산·육아 주체로서 “아이를 정치적으로만 보지 않고, 함께 잘 기를 존재”로 인식하는 과정을 보여주어, 임신·출산이 개인의 권리이자 공적 책임이 될 수 있음을 환기한다. 이는 SDGs Goal 5.6 (성·재생산 보건 및 권리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과도 부합한다.

최종적으로 오오쿠가 재편되고, 도모코와 주변 여성들이 후계자 육성에 관여하며 에도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결말은, 과거 사극의 결말(여성 모두 비극으로 끝나거나 배제됨)과 대비된다.

이는 “여성도 공적·정치적 영역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극적으로 제시해, SDGs Goal 5.5(정치·경제·공적 삶의 모든 결정 단계에서 여성 리더십 확대)를 사극 세계관 안에 성공적으로 녹여낸 예로 볼 수 있다.

정리하면, 2024년판 <오오쿠>는 이전 시리즈와 달리 여성들을 단순히 희생자나 모략가가 아닌, “역사적 공간(오오쿠)을 재해석하고 성평등 가치와 접목하는 주체들”로 그렸다. 이를 통해 성평등이라는 현대적 가치를 사극 장르에 성공적으로 접목했고, SDGs Goal 5가 지향하는 여러 세부 목표(여성의 공적 참여, 재생산권, 정치·경제 리더십 등)를 극화(劇化)한 점이 특징적이다.

물론 한계 또한 존재한다. 작품이 여성 내부 권력투쟁을 흥미 요소로 다루면서, 때로는 여성 간 대립을 과도하게 극화하는 면이 있고, 다누마 오키쓰구(田沼意次)·마쓰다이라 사다노부(松平定信) 등 남성 권력자와 손잡은 여성 캐릭터가 과하게 악역화되어 ‘선악 이분법’으로 처리된 부분

도 보인다. 그러나 오오쿠 서사 자체가 '흥행 사극'의 형식을 갖추는 만큼, 대중적 재미와 성평등 메시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결합할지에 대한 제작적 고민이 엿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절에서 분석한 2024년판 〈오오쿠〉는 SF라는 가상의 공간이 적용되지 않은, 여성 서사 재구성의 결정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제3.1~3.3절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일본 근세 시기를 배경으로 한 오오쿠 작품들은 가부장적 질서와 싸우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이어왔으나, 현대적 시각에서 더욱 적극적인 여성 주체성을 발굴·부각하는 작품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했다. 그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2024년판은 역사적 사실과 허구적 구성 사이를 오가면서도 젠더 관점과 SDGs라는 사회적 의제까지 품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오오쿠 세계관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맺음을 대신하며: 오오쿠의 SDGs 공헌과 발전과제

본고는 일본 근세를 배경으로 한 오오쿠 텍스트들이 전통적으로 '가부장적 질서에 종속된 여성상'을 재현해 왔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현대적 시각—특히 SDGs Goal 5(성평등)—과 결합함으로써 여성 서사가 어떻게 확장되고 재해석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1950년대 후나바시 세이이치의 『에지마 이쿠시마』가 보여준 '여성 희생' 중심 서사가, 2000년대 이후 아사노 다에코 『오오쿠』를 거쳐, 최근 2024년판 대하 드라마 〈오오쿠〉에서 한 층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여성 인물들로 변모해 온 과정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발전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역사 사극은 오래도록 남성 위주의 정치·전쟁 서사를 부각하며, 여성에게는 '내부 갈등'이나 '희생적 미덕'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오오쿠라는 제한적 공간을 전유하는 여성 인물들의 시선은, 과거 '부속적인 존

재'로 치부되던 여성 캐릭터도 정치적 주제로 재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보인다. 특히 2024년판 〈오오쿠〉는 여성 간 경쟁·모략만을 그리는 단순 이분법을 넘어, 여성들이 연대하고 협력함으로써 가부장제를 부분적으로 균열시켜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는 근세 일본의 제약된 환경에서도 여성의 실질적 권력 행사가 가능했음을 암시함과 동시에, 현대의 성평등 담론을 대중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낸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4년 〈오오쿠〉를 배경으로 한 작품 속에서, 여성들은 그저 후계자를 낳기 위한 도구나 남성 권력의 부속물이 아니었다. 오치보·오시나·도모코 등 다양한 인물들이 출산·육아 과정을 주체적으로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권력 투쟁은 물론 상호 연대까지 동시에 경험한다. 이는 SDGs Goal 5.5(정치·경제·공적 삶의 리더십 보장), 5.6(성·재생산 보건 및 권리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같은 세부 목표의 가치를 사극 서사 속에 반영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즉, 여성의 재생산과 자녀 양육이 단순히 사적인 가족사나 궁중암투 요소가 아니라, 공적 정책 결정과 연결된 하나의 정치 행위임을 강하게 환기한다.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논쟁거리인 임신·출산·육아 권리를 '역사적 맥락과 현대적 가치'로 함께 읽어내도록 유도한다.

본고에서 검토한 오오쿠 텍스트들은, 단순 오락물이 아니라 대중문화가 역사 재현을 통해 현대 사회에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나아가 SDGs 같은 국제적 의제까지 확산시킬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오오쿠가 가진 '궁중 비밀', '음모와 암투'라는 장르적 흥미 요소 위에, 여성 캐릭터들의 성장과 연대를 배치함으로써 사극의 오락성과 페미니즘·젠더 이슈가 결합하는 독특한 구조를 형성해 왔다. 이는 향후 다른 사극 작품들도 단순히 과거를 그리는 데 그치지 않고, 현대적 가치(성평등, 다문화·인권 등)와 연결해 새로운 담론장을 열 가능성을 시사한다.

물론 오오쿠 서사가 지닌 몇 가지 한계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여성 간 갈등을 자극적으로 부각함으로써 시청자 호기심을 유도하는 서술 장

치가, 오히려 ‘여성은 경쟁적 존재’라는 고정관념을 재강화할 위험이 있다. 둘째, 극 중 ‘악역화된 여성 캐릭터들이 때로는 ‘선악 이분법’ 속에서 희생당하는 방식으로 정리됨에 따라, 복잡한 정치·사회적 맥락을 충분히 입체적으로 조망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대하 드라마나 영화화 과정에서 상업적 성공을 위해 역사적 사실을 과도하게 변형하거나 시대 고증을 희생할 경우, 사극 장르의 설득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여성 간 연대와 갈등을 함께 조망하면서, 여성 인물들의 동기나 맥락을 다층적으로 표현하는 서사 기획이 필요하다. 둘째, 기획 단계부터 현대적 성평등 시각과 역사성을 조율할 전문가(역사·젠더 연구자 등)를 적극 참여시켜, 작품이 상업적 흥행과 사회적 가치 전파를 균형 있게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앞으로도 오오쿠라는 독특한 소재와 더불어, 에도 시대 여성의 생활사를 다양하게 재발굴해 페미니즘적 재해석을 시도함으로써, 사극 장르가 ‘과거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미래에 대한 성찰을 불러일으키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 논의한 오오쿠 작품들은 일본의 근세적 유교 문화 속에서 억압되거나 주변화된 여성 인물이, 현대적 시각에서 재조명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이자, SDGs Goal 5를 비롯한 여성 권한 강화 담론과의 접점을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에도 시기의 ‘금남 구역’이라는 설정이 여성 서사의 정치적 잠재력을 확장하는 무대로 기능함을 확인했으며, 이를 통해 역사 사극이 단순 오락을 넘어 현실 사회에도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

나아가 오늘날 사극·문학·드라마가 지닌 파급력을 고려할 때, 오오쿠 서사와 같은 ‘여성주의적 역사 재해석’은 성평등 가치를 대중에게 전파하는 하나의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시도들을 더욱 다양화하고 발전시킨다면, 동아시아 가부장제의 구조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도 ‘역사 다시쓰기’를 통한 새로운 문화·사회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백 외. 2013.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서발턴 개념의 역사에 관한 성찰들』. 태혜숙(역). 서울:그린비. : 42-140.
- 김정호. 2003. 『근세 동아시아의 개혁사상』. 논형. : 85-86.
- 김정호. 2024a. “「에지마 이쿠시마 사건」의 해체 - 역사 사건과 텍스트에서 본 질투와 욕망의 재구성 -”. 『日本語文學』 1(103): 223-246.
- _____. 2024b. “『平家物語』 속 시라보시(白拍子) -유녀(遊女)적 해석을 넘어”. 『일어 일문학』 104: 243-260.
- 금영진. 2011. “江戸噺本속에 보이는 老婆의 嫉妬와 好色”. 『외국문학연구』 41: 9-32.
- 루스 베네딕트. 2021. 『국화와 칼』. 김윤식 외(역). 을유문화사. : 164.
- 무라타 사야카(村田沙耶香). 2018. 『살인출산』. 이영미 (역). 현대문학.
- 장미경. 2005. “근대일본 수신교과서에 나타난 여성의 근대성과 반근대성 —「尋常小學修身書」를 중심으로—”. 『日本語文學』 25: 219-238.
- 최승은. 2016. “「일본 중세 설화에 나타난 질투 관념 - 『발심집(發心集)』, 『고금저문집(古今著聞集)』을 중심으로 -」”. 『日本思想』 31: 217-238.
- 최용우. 2020. “일본의 공사(公私) 개념과 여성의 위치 -1980년대 “아그네스 논쟁”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84: 107-126.
- 케이트 밀렛(Kate Millett). 2020. 『성 정치학』. 김유경 (역). 쌤앤파커스.

(2) 국외문헌

- 淺野妙子. 2006. 『大奥』. 角川文庫. : 19,137,139,144-145.
- 菊池駿助, 司法大臣官房庶務課【編】. 1931. 『徳川禁令考 前聚 第三帙』. 吉川弘文館. : 87.
- 小平麻衣子. 2023. 「フェミニズム批評」 『批評理論を學ぶ人のために』. 世界思想社. : 104-105.
- 竹内誠, 深井雅海, 松尾美恵子. 2015. 『徳川「大奥」事典』. 東京堂出版. : 7-432.
- 田端泰子. 2002. 『春日局に見る乳母役割の変質』. 女性歴史文化研究所紀要.
- 遠山淳. 2009. 『日本文化論キーワード』. 有斐閣. : 16.
- 中江克己. 2010. 『江戸城の迷宮「大奥の謎」を解く』. PHP文庫/PHP研究所. : 112.

- 永島今四郎, 太田贊雄. 1892. 『千代田城大奥 上下』朝野新聞社 : 1-250, 1-217.
三田村鳶魚. 2014[1964]. 『御殿女中』. 青蛙房 : 13-333.
松田秀子. 2010. 「女性解放運動に關わる雑誌」『大正女性文學論』. 翰林書房 : 135.
福田千鶴. 2020. “江戸城本丸女中法度の基礎的研究”. 『九州文化史研究所紀要』63: 1-42.
舟橋聖一. 1973. 『舟橋聖一集』. 筑摩書房 : 23,48,293-294,324.
矢代靜一. 1973. 「宮城野」『寫樂考』. 日本劇作家協會 : 224.

(3) 영상 참고

- 〈SHOGUN 將軍〉(Justin Marks, 2024, Disney+, 10부), 제5화「父の怒り」, 제9화「奈落の底」.
〈大奥〉(兼崎涼介, 2024, フジテレビ・東映, 11부), 제1화 - 제11화, Btv+ 스트리밍 기준.

Abstract

Women in Early Modern Japanese Works and the SDGs
– Female Characters in *Ōoku* and Their Contributions
to SDGs and Future Directions

Kim, Jungho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how literary and dramatic works set in *Ōoku* (大奥) – the Edo-period enclave for women – portray female narratives and incorporate modern concepts of gender equality (SDGs Goal 5). From Funabashi Seiichi's *Ejima Ikushima* (1950s) to Asano Taeko's *Ōoku* (2000s) and the 2024 Taiga Drama adaptation, these works progressively dismantle male-centric structures. The latest version, in particular, positions women not simply as victims or schemers, but as active participants in both *Ōoku*'s internal dynamics and broader shogunate politics, thus emphasizing equality and empowerment. It deftly weaves issues like childbirth control, family-based gender roles, and women's rivalry and solidarity into the historical drama, effectively reflecting SDGs Goal 5 (women's public engagement,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and gender-equality awareness). By reconceiving women's narratives, these works demonstrate how popular culture can advance social values beyond merely revisiting historical events.

Key words: Ooku, Deconstruction, SDGs, Gender Equality, Historical Drama, Historical Reinterpretation

- 투 고 일 : 2025년 3월 16일
- 최초심사일 : 2025년 4월 4일
- 게재확정일 : 2025년 4월 25일